

**아·태 6개국 민간기
부문 교류 확대될 듯**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6개국이 민간 항공기 부문에서의 교류가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14일(토)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IADF(International Aircraft Development Fund : 항공기 국제공동개발 촉진기금) 2차 예비회의에 참석한 이들 6개국 대표들은 우선 정부간 협의하에 기술 및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인적자원의 상호교류를 도모키로 하고, 점차 기술 및 교육뿐만 아니라 각국의 비즈니스 및 마케팅 부문으로까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 한국측 대표로 참석한 협회 김영갑 이사는 현재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항공사업 현황 및 실적과 내년도에 개최되는 '96 서울에어쇼를 소개하고, 세계 항공시장 진출 및 상호 기술력 제고 등을 위해 아시아 지역 국가간의 긴밀한 상호협력을 제안했다.

IADF는 민간 항공사업의 공동 개발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국

가간의 인적자원 및 정보의 상호 교류, 공동개발 계획 수립 및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1986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서, 현재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00년대 항공기등
첨단산업 크게 발전**

국내 산업은 향후 중화학공업이 성장을 주도하면서 2005년에는 국내 총산출액(국민총생산에 중간재 생산까지 포함)이 지난 90년의 2.9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10월 11일 산업은행이 내놓은 2000년대 한국산업의 구조변화와 장기발전 전략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국내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제조업비중은 지난 90년 49.6%에서 2000년 56.6%, 2005년 57.8%로 각각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농업어업은 90년 5.2%에서 2005년 2.1%로 광업은 0.5%에서 0.2%로,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업은 12.2%에서 10.5%로, 그리고 서비스업은 32.4%에서 29.4%로 감소하게 된다.

특히 중화학공업은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확대에 따라 국제

경쟁력이 크게 강화돼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년 32.3%에서 2005년 45.6%로 확대되는 등 향후 산업성장을 계속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됐다.

또 정밀화학, 금속가공 및 공작기계,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기기, 반도체, 정밀기기, 자동차, 항공기 등 8개 첨단산업은 2000년까지 연평균 14.0%씩, 이후에는 8.1%씩 성장,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년 8.5%에서 2005년 16.5%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산업은행은 이에따라 국내 총산출액이 2000년까지 연평균 8.0%, 2005년까지는 연평균 5.7%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2005년의 국내 총산출액이 90년의 2.9배인 1천1백86조9천억원에 달하게 된다고 말했다.

**삼성항공, 항공기엔진
부품 수출**

삼성항공은 미국의 항공기 엔진 제조업체인 제너럴 일렉트릭사와 얼라이디 시그널사 등에 가스터빈 엔진의 핵심부품인 터빈 블레이드를 3년간 4천만달러 규모로 공급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

했다고 10월 9일 발표했다.

또 이번에 항공기 엔진제작에 대한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 받은 것을 계기로 올 연말까지 GE 등으로부터 5천만달러어치를 추가로 수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터빈 블레이드는 항공기나 선박엔진의 터빈에 장착돼 섭씨 2천도의 고온과 고압의 공기로부터 열을 추출하는 것으로 엔진메이커들이 기술이전을 꺼리는 항공엔진의 핵심부품이다.

기아기공, 랜딩기어 제작 기술협력

기아기공은 韓·中 중형항공기 개발사업중 랜딩기어 제작에 참여키 위해 미국 랜딩기어 전문업체인 메시에르 다우티사를 기술협력선으로 확보했다고 10월 5일 밝혔다.

기아기공은 韓·中이 공동 개발하게 될 1백인승급 중형항공기의 랜딩기어 제작을 위해 미국 항공기 제작사 및 랜딩기어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한 결과 지난달 말 메시에르다우티사와 기술협력에 합의했다.

MD-95 50대 수주로 개발사업 본격화 105석 125석등 3가지 버전

미국에틀랜타 소재 Valujet 항공사가 MD-95 항공기를 최초로 구매하므로서 그동안 사업개시가 불투명했던 동 100석급 항공기 개발사업이 개시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번 구매규모는 확정주문 50대에 옵션 50대를 포함하면 총 100대에 이르는 대형구매에 해당된다. 총 10억달러에 이르는 동 항공기의 인도는 1999년 5월경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데 엔진은 BMW와 Rolls Royce가 공동개발한 BR-715로 확정되었다.

이번 구매계약은 Launch Buyer에게 가격적인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MD사의 Harry Stonecipher 사장은 앞으로 어떤 고객도 2천5백만 달러에는 구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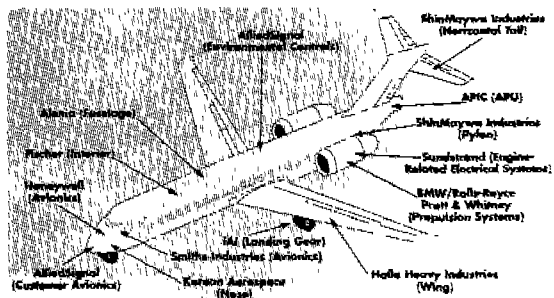
그 동안 Valujet 항공사의 구매 계획에 따라 에어버스의 A319, 보잉의

B737-600, MD의 MD-95등 3기종이 치열한 판매경쟁을 벌여왔다. Flight International지의 보도에 따르면 동 수주경쟁의 구매규모는 확정구매 25대, 옵션구매 25대 총 50대로 알려졌었는데 실제로는 총 100대로 증가된 것이다.

MD사는 MD-95 개발을 발표한 후 스칸디나비아항공이 지난 3월 돌연 B737-600 35대를 주문해 사실상 MD-95 개발사업이 취소되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있었다.

MD-95는 105석 항속거리 1,500NM인 MD-95-30을 기본형으로 항속거리를 2,100NM으로 확장한 MD-95-30ER형과 항속거리 1,700NM의 125석 MD-95-50등 3가지 버전으로 개발되는데 Valujet 항공사가 주문한 것은 MD-95-50형이다.

MD-95 개발사업은 개발비를 낮추기 위해 DC-9 항공기를 현대화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날개는 새로 개발하지 않고 DC-9의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엔진



MD-95사업 참여사의 작업분담

은 BMW사와 Rolls-Royce사가 공동개발한 BR715나 Pratt & Whitney사의 MTFE중에서 항공기 구매자가 선택하여 장착할 수 있다.

동 사업에는 얼라이드시그널(공조 및 항공전자), 알레나(동체), 한리중공업(날개), Fisher(인테리), 하니웰(항공전자), 대한항공(Nose), 스미스인터스트리(항공전자), IAI(강착장치), BMW/Rolls-Royce(추력장치), P&W(추력장치), 스틱다드(엔진 주변 전기장치), 신메이와공업(파일런, 수평꼬리날개), APIC(보조발전기)등 13개사가 파트너로 참가하고 MD사는 최종조립만 담당한다.

미쓰비시 중공업, 70석급 여객기 개발

미쓰비시 중공업은 캐나다의 항공기 메이커 봄발디아의 70석급 터보추진 여객기의 개발·생산에 공동 참가하여 기체후동부나 垂直尾翼등의 개발을 담당, 97년 시험비행을 목표로 하고있다.

방위청 항공기수요 감소에 대응하여 민간항공기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동 봄바르디아와의 공동개발은 장거리 비즈니스 제트기에 이어 두번째다.

미쓰비시중공업은 YSX 구상의 주요 파트너이지만 단독으로 국제제휴를 추진해 주목된다.

공동개발·생산 대상기종은 Dash 8-300型機의 동체연장형으로 신형의 6날개 프로펠러나 강화형 엔진을 채용해 항속거리를 650킬로미터로 향상시켰다.

봄발디아는 이미 18기 이상의 확정수주가 있어 6월 정식개발에 착수했다. 97년 전반 시험비행, 98년 형식증명취득을 계획하고 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담당하는 것은 중동부, 후동부, 垂直尾翼, 수평꼬리날개, 승강타나 도어등이며, 나고야 항공우주시스템 제작소에서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 보잉사 수뇌부는 10월 14일 일본의 항공기메이커와 공동개발 예정인 차기소형제트여객기(YSX)에 관해서 현 상태로서는 개발 계획 전망이 서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 FSX 첫 비행시험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은 10월 7일 나고야공항에서 항공 자위대용 차기 지원전투기 'FSX' 시험제작 1호기의 사내 첫 시험비행을 실시했다.

시험제작 1호기는 95년 1월에 미쓰비시중공업의 고마키남공장을 틀 아웃 하고 9월에는 지상활동 시험을 실시했다.

2기의 전투기에 동반된 시험제작기는 오전 9시 8분에 이륙해 중부 산악지대 상공의 시험 공역을 40분이 채 안걸려 시험비행하고 무사히 착륙했다.

이번 시험비행은 시험제작기의 이착륙과 비행 때의 기본적인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96년 3월 방위청에 시험제작기를 납품하기까지 10여회 실시될 예정인 시험비행의 첫번째이다.

첫 시험비행 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우주시스템제작소의 간다 고쿠이치 기사장은 '첫 비행은 무사히 성공해 비행계획대로 기능이 정상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조종한 같은 제작소의 와타나베 요시유키 조종사는 'FSX는 기동성이 뛰어나고 가뿐한 지원전투기라는 인상을 받았다. 이착륙 때나 상공에서도 안정돼 있어 생각대로 기체를 조종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FSX는 F1 지원전투기를 개량한 것으로 함정에 의한 침공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지난 88년부터 개발에 착수해 약 3천2백74억엔(약 2조5천억원)이

투입돼 금년초 시제기가 완성되었다.

일방위청은 내년에 약 12기를 구입할 방침이며 최종적으로는 부대용과 교육용으로 1백41기를 배치한다는 계획인데 가격은 한대에 약 1백23억엔(약 1천억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비행시험은 당초 6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바람이 거세 7일로 연기됐었다.

보잉사 노조 파업돌입. 임금인상 등 요구

세계최대 항공기 제작회사인 美보잉社 생산라인 종업원 3만2천여명이 급여인상과 의료혜택증진 등을 요구하며 10월 6일 파업에 들어갔다.

워싱턴, 캔자스, 오리건등 3개주 공장이 가담한 이번 파업은 지난 89년 48일간 공장조업이 중단됐던 파업사태 이후 처음 있는 대규모 노사분규다.

하청물량의 증가에 따른 종업

원의 삭감은 미국 항공기제조업계의 공통의 문제로 앞으로 보잉뿐만 아니라, 록히드·더글러스사 등의 노동협정 개정교섭에도 큰 문제가 될 것이다. IMAW 간부는 일본이나 중국등 해외에의 하청위탁을 중지하도록 콜린턴 정권에도 요청하고 있다.

보잉사, 6백명 수용 가능한 초대형 항공기 제작 계획, 발표

미국의 보잉(Boeing)사는 금세기말까지 초대형 점보제트기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프랑크 쉬론츠(Frank Shrontz) 보잉사 회장이 콜린 마샬(Colin Marshall) 브리티시 에어웨이사 회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밝혀진 이 계획은 기존의 보잉 747기를 확대한 형태로 6백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항공기를 생산하려는 것이다.

금년초 보잉사와 프랑스의 아에로스파시알(Aerospatiale), 독일의 다미틀러-벤츠 아에로스페이스, 영국의 브리티시 에어스페이스, 스페인의 카사(CASA) 항공사는 초대형 항공기(VLCT)의 제작을 검토한 바

있으나, 시장성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후 보잉사와 에어버스 인더스트리(Airbus Industrie)사는 초대형 항공기 제작을 모색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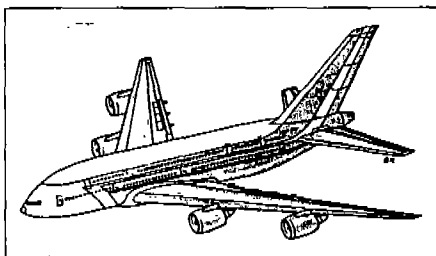
美휴즈사 중국에 10억달러투자 추진

10월 11일의 中國系 香港紙 文匯報는 미국의 방위우주기업 GM 휴즈 일렉트로닉스는 앞으로 10년간 중국시장에 1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휴즈의 암스트롱 회장이 최근 북경을 방문, 중국측과의 회담에서 표명했다.

동지에 의하면, 휴즈는 작년 중국의 장성공업총공사와 함께 금세기중에 중국의 長征로켓을 쏘아 올리는 위성 10기를 쏘아 올리는 계획에 합의한 외에, 자회사를 통해 자동차부품 비즈니스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중국 郵電部의 관련기업과 중국에서 통신위성을 생산하는 계약에도 조인했다고 한다.

KIET, 南·北韓 항공우주산업 協力방안 연구

산업연구원(KIET)이 남북한



Boeing사가 구상중인 747 초대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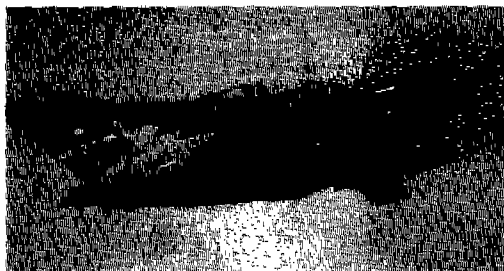
항공우주산업의 구조조정과 산업 협력 방안을 연구, 금년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통상산업부가 남·북한 산업협력 확대를 위해 지난 8월 KIET에 연구를 의뢰한 10개 업종분야의 산업협력 확대 방안 연구용역 중 항공우주산업 분야에 대한 것이다. KIET는 금년 말까지 보고서를 완료, 제출할 예정이다.

동 연구의 주요내용은 ▲남북한 항공우주산업의 구조비교 및 2005년까지의 수급전망 ▲남북한의 분업구조 현황파악 및 변화전망 ▲분업생산, 기술 및 자본 협력, 원자재 교환, R&D, 인력 등 측면의 협력방향 ▲공업배치전략 ▲정부와 민간의 연도별/단계별 실행전략 등으로 구성된다.

C-17 납품 쾌조 예정보다 빨라 21기 인도

미국의 MD사는 C-17 그로브 마스터Ⅱ 신형수송기 양산 21호를 미 공군에 납품하여 연속 9기를



예정보다 빨리 인도하는 쾌조를 보이고 있다.

C-17 수송기의 최초 운용부대인 사우스 케로라이나주 찰스턴 공군기지의 제437 항공수송단은 12기를 인수하여 신형 핵심 수송기의 작전 평가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시험내용은 신뢰성, 정비성 등인데 그 일환으로 C-17기가 일분의 요꼬다 기지까지 운항하는 등을 통해 시험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성적으로는 신뢰성에 있어 99%선의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으며 양산 20호기부터 정비성이 개량되어 지상 정비가 한결 쉬워지고 있다고 한다.

독일, 첨보위성 개발결정

독일은 지금까지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권을 장악해온 첩보용 군사위성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디 벨트지가 10월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특히 독일정부가 신속한 자체기술 개발을 위한 사전 단계로서 미국과의 기술협력을 모색중이며 프랑스와는 첨단 군사위성의 공동개발 가능성을 타

진중이라고 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독일 첩보위성 개발의 핵심역할은 다이믈러-벤츠그룹의 우주항공산업 부문인 DASA사가 맡게될 것으로 알려졌다. DASA는 우주항공기술외에도 첩보위성 제작에 필수적인 레이더 기술분야에서 특히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첩보위성 부문에 관한 독일 기술협력 가능성과 관련, 프랑스는 지난 7월 자체기술로 개발한 엘리오스(HELIOS 1A)위성을 쏘아올렸으나 이 위성은 기상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측은 따라서 첨단레이더 장비를 갖추고 전천후 지상촬영 및 전송이 가능한 HELIOS Ⅱ 위성개발에 나설 방침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레이더 기술은 DASA측이 보유하고 있기때문에 양국간 기술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삼성항공 대표이사 李大遠
- 기계계열업종 소그룹장
- 삼성중공업 및 삼성항공
만도기계 대표이사 吳尙洙